

브르디외의 문화자본에 관한 연구 -전통춤을 대상으로-

배나래*, 최석권**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전수교육조교

e-mail:victory0302@hanmail.net

A Study on the Cultural Capital of Bredieu

Na-Rae Bae*, Suk-Kwon Choi**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Daejeon Metropolitan C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5 SeungMu Heritage Skills Teaching

Assistant^{1**}

요 약

문화자본은 문화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나 유형의 자산처럼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경제적 교환 가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다. 문화자본은 문화와 예술을 생성하고 소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자본은 문화와 예술을 생성하고 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문화도 경제적인 가치로서의 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도 권위로서 권력으로서 사회에서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브르디외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서 문화자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기제를 밝히고, 개개인의 특수한 환경적 배경에 따른 체화된 형태(아비투스)의 전통춤의 경험, 즉 문화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하자 한다.

1. 서론

문화자본은 문화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나 유형의 자산처럼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경제적 교환 가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다. 문화자본은 문화와 예술을 생성하고 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문화도 경제적인 가치로서의 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도 권위로서 권력으로서 사회에서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는 문화 자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문화자본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고 문화는 결국 그 사회의 힘을 상징하는 잣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서구 사회의 문화적 자본은 그들만의 역사적 특성이 반영되고 고급과 저급의 단편적인 문화적 위계로 구분하여 발전하였다. 이러한 문화의 고급과 저급에 대한 구분에 대해 많은 수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비판적 시각을 보인 학자들은 문화적 자본에 대한 기준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들 중 한명 이 문화 사회학자 부르디외(1977)라고 할수 있다. 부르디외는 경제적 위치, 사회적 지위, 상징 자본을 문화적 지식 및 기술과 연결 짓는 문화 재생산에 관한 폭넓은 이론을 고안해 냈다.

본 연구는 브르디외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서 문화자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기제를 밝히고, 개개인의 특수한 환경적 배경에 따른 체화된 형태(아비투스)의 전통춤의 경험, 즉 문화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하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질적연구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세심한 감정이나 변화, 생각 등을 양질의 답변으로 이끌어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체화된 문화자본의 형태에 대한 주제에 더 가까이 접근할수 있다는 것이다. 질적연구방법은 응답자의 예술적 경험 혹은 예술적 가치를 면밀히 연구할 수 있다. 연구대상은 전통문화 종사자들이었으며, 그들에게 전통춤이 가지는 문화자본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심층연구를 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는 문화 사회학자인 부르디외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서 한국전통문화인 전통춤에 대한 문화자본

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기제를 밝히는 연구이다.

사람마다 다른 특수한 환경적 배경에 따른 체화된 형태(아비투스)의 한국문화의 체험 경험, 전통춤의 경험, 즉 문화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우리사회에 서양의 춤과 음악은 고급문화라 언급하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서양 문화(춤과 음악)는 고급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통문화 특히 전통춤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통춤)는 대중적인 문화로서 진입은 어려운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술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앞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특히 전통춤에 대한 문화자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전통춤에 대한 문화자본의 의미를 파악하고 한국전통문화인 전통춤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1]Dongsoong Han, University Education and Content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Humanities Content Society,42, pp9-24, 2016.
- [2]Na-Rae Bae, Study of an Effect of Korean Dance for Middle-Aged Womens as a Culturel Welfare,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pp186-192, 2016.
- [3]Bo Rahm Suh, Ha Rim Jang, Taik Soo Hyun,“ A Study on the Development History of Cultural Welfare Policy in Korea ” Journal of kapahistory, 29, pp. 95-124, 2011